

4. 성장의 시간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짜익!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
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패달을 밟기 시작했다. 일 단
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
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연
어맛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전 자준
심이 걸린 문제다. 머리고 등짝이 연신 얻어터지
기 전에 나만의 승부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
어야 한다.
다시 내 뒤통수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
나, 브레이크를 잠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그런
데,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
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
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어, 아!”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데굴
데굴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
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좌우경 깨질 듯이 쾅쾅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
다. 어느새 아버지께 차를 갖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 있으려니, 나는 말
쩍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물 위에 걸려서 그런지 가진 곳 하나 없었다. (중략)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 줘!”
이 아버지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더니,
“없는데요.”
아버지께 날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중학생인데 핸
드폰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지 살펴는 눈치
였다. 이봐요, 아버지께 들고 있는 폴더 폰이 더 거짓
말 같거든요?
“그럼 진 전화번호라도 알려 줘!”
나는 마지막에 이름과 번호를 불러 주었다. 아버
씨가 번호를 저장하는 데 한참 걸렸다. 나와 재준이
는 아버지께 남은 핸드폰만 명하니 바라보았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 봐.”

아버지가 트럭으로 낚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오십 미터쯤이니가 왕복 백 미터. 더운 날씨에 아저
씨도 고생이다.
“아, 저 아버지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
재준이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다. 핸드
폰만들이나 낚은 일 톤 트럭인데 집안을 포장머자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뒷바퀴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
수, 영양제단빵 세 개 이전 완’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께 다시 철레벌떡 뛰어왔다.

01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학생으로, 친구와 자전거 경주를 하고 있었
- ② ‘나’는 트럭을 피하려다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다.
- ③ 트럭 운전자는 옥수수와 제단빵을 파는 아저씨였
- ④ 트럭 운전자는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갔
- ⑤ ‘나’는 ~~크게~~ 다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워 있
- ⑥ 있었다.

02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자존심이 세다.
- ② 단순하고 철이 없다.
- ③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다.
- ④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
- 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안다.

03 이 글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행동들

찾아 쓰고, 아버지의 성격이 어떠한지 서술하시
오.
아저씨는 덩어진 ‘나’를 살리기 위해
뛰어오르, 연각 번호를 저장하는 등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익, 우우우웅!
이것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
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
해다 찾는지 모르겠다.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서,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켜진다.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
금도 학교에서 내 준다.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
임을 실했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
가 퇴근하는 일곱 시까지는.
게임할 땐 꼭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가끔씩
시계를 보면 성큼성큼 지나있는 시간에 감쪽감쪽
놀란다. 일곱 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때르르릉 때르르릉.
계속 지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마지막
으로 영혼을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 버릴
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 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한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짐 맞습니까?”
아, 쾅쾅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
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네.”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일할 땐 못 받으시는데요.”
거짓말이 엉 점 이 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 나갔
다. 가만 보면 나도 머리가 좋다. 그런데 성직은
왜 그 모양일까.
집에 가서 보니 다친 데는 없었고?
아,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지금, 분신과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
만히 신 채로 계속 연어맛과 있던 말이다!

04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대사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희곡
- ② 주인공 ‘나’가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생각을 상세하 게 묘사하고 있다. = 5단, (1인칭 주인공 시점)
- ③ 3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 ④ 서술자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인물의 행동 을 객관적을 두고 묘사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의미를 모두 파 악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2인칭, 작가 시점)

0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경험과 정서를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이다. : 수필
- ② 고귀한 철학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 역경을 이 겨내는 과정을 그렸다. = 산문
- ③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 ④ ‘나’를 주인공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 극본이다. : 희곡
- ⑤ 청소년인 ‘나’가 사고를 겪고 옥수수 아저씨를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06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십니다.
- ② ‘나’는 평소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나’의 엄마는 상당히 엄하시기 때문에 ‘나’가 무서워한다.
- ④ ‘나’는 부모님과 대면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한다.
- ⑤ 컴퓨터와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은 상황으로 보 아 ‘나’의 형편은 좋지 않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보내 줄까, 괜히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계속 살려는 의지로 버티는 녀석을 보고 마음을 몇 번이나 바꾸었다. 그 물고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옆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밖에.

결국 아베에게는 다른 물고기를 위해 죽기 직전 인 골색 거피를 건져 내었다. 죽 저쳐서 더는 몸부림도 치지 못하는 물고기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섭고 당한 느낌이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물고기의 죽음을 본 터라 조금은 무뎠을 줄 알았다. 그렇지만 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비록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힘이 빠진 채 가만히 있는 물고기를 보니 좌절감이 건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마음에 멍한 채로 있다가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괜히 내게 와서 그렇게 아프게 떠났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했다. 며칠 동안 그랬듯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힘차게 헤엄칠 텐데' 하며 오래 울었다. 해야 할 일도 있고 밤하늘에 눈을 쉬다가 잠들어 눈이 통통 부어 버렸다.

그다음 날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오랜 시간 이별만을 기다렸는데 통통 부은 얼굴이 어떻게 해도 가려지지 않아서 그날 찍은 사진에는 전날 밤의 홍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 속 얼굴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하면 좋은 곳으로 못 간다는데.....'라고 언젠가 민화책에서 봤던 말을 중얼거리며 아픔을 담았던 나를 회상하겠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피는 내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안녕, 나의 물고기. 오래오래 기억할게."

12 다영이가 물고기를 떠나보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
- ② 인생은 짧고 덧없어 허무하다는 것
- ③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 ④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 ⑤ 물고기를 키울 때에는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13 <보기>에 제시된 정서의 개념과 예를 참고하여, 다영이가 물고기를 떠나보낸 경험에서 느낀 정서를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보기>
정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예) 설렘, 슬픔함.

견제감, 미안함, 허전함, 무서움, 슬픔, 그리움 등.

14 <보기>는 이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다영이가 개요를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물고기 → 안녕, 나의 물고기
처음	동생이 학교에서 받아 온 열대어가 나에게도 행복을 줌.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에게 생일 선물로 나의 물고기를 받고 싶다고 부탁드려서 열한 마리의 거피를 키우게 됨. • 나에게 가장 특별했던 골색의 거피 한 마리가 헤엄을 잘 치지 못하고 힘들어함. • 결국 물고기가 세상을 떠남. • 생일 카페에서 초등학교 때의 친구를 만남.
끝	거피가 떠난 후 소중한 생명의 끝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낀.

- ① 나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바꿔야겠어.
- ② 처음 부분에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소개해야겠어.
- ③ 중간 부분에는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일지라도 흥미를 위해 추가해야겠어.
- ④ 내가 경험한 일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 주도록 중간 부분의 내용을 더 추가해야겠어.
- ⑤ 물고기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15 ㉠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그대 노 저어 오요.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은유
- ② 내 사랑은 아지랑이 / 춘삼월 아지랑이.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은유
- ③ 나는 머루처럼 투명한 / 밤하늘을 사랑했다.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은유
- ④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은유
- ⑤ 들로 가신 임마 생각 / 책을 펼치면 / 책장은 그대로 / 푸른 보리밭.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은유

16 이 글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보기>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 <보기>
- 할머니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던 일이 참 재미있었어.
 -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던 일도 기억나.
 -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서 마음이 무척 아팠어.
- ① 경험 떠올리기
 - ② 경험과 정서 구체화하기
 - ③ 내용 조직하기
 - ④ 표현하기
 - ⑤ 고쳐쓰기

17 이 글의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을 고르세요?

- ① 시간의 흐름
- ② 공간의 이동
- ③ 정서의 예시
- ④ 분석과 분류
- ⑤ 문제와 해결 방법

18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영이가 고려한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이 든 물고기와 헤어지고 슬펐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겠어.
- ② 열한 마리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를 재미있게 묘사해 봐야지.
- ③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카페에 가서 행동했던 기억도 강렬한 경험이니까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물고기가 약해져서 보내 줄지 고민했던 과정과, 떠나보내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해서 그때의 생각과 느낀 점을 기록하고 싶어.
- ⑤ 내가 느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해야 할 일도 있고 밤하늘에 눈물을 쉬다가 잠들어 눈이 통통 부어 버렸다'라고 표현해야겠어.

19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을 성찰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 ② 자신을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
- ④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정리가 되고 치유할 수 있다.
- ⑤ 독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공감하게 해서 갈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20 다음 중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 ① 수필
 - ② 편지
 - ③ 만화
 - ④ 설명문
 - ⑤ 논설문
-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 수필, 편지, 만화, 논설문, 논평하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에 와서 옷을 벗어 보니 역시나 얇구리가 넓게 까져 피가 묻어 나왔다. ㉠그런데 살갓보다도 마음이 쓰러져 죽겠다. 이거 이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다.

선글라스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다. 왜 나한테만 그럴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관청은 척했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 났다.

개진 스마트폰과 알미온 선글라스 아저씨가 번갈아 내 마음을 후벼 판다. 그럴수록 힘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차 번호를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해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써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게다가 내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팠다.

나는 온갖 장광사를 하며 몸을 다 씻고 수건을 두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짝 깨진 스마트폰이 보였다. 다시금 정신이 아찔해졌다. 날 보고 '책임자!'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책임질 사람은 도망갔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래로 나만 덩터기 쓸 수는 없었다. 나 도 당한 만큼 돌려줘야 자정이 풀릴 것 같았다. 그 할디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교통 바지의 뒷주머니를 뒤졌다. 두 번 겹친 메모지가 나왔다. 펼쳐 보니 옥수수 아저씨의 연락처가 보였다. 침을 꿀꺽 삼켰다.

다시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한다. 이 사실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줄어들었다. 나는 집 전화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렸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중략)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그게, 저....."

"왜 그래? 아프면 솔직히 말해."

㉡아저씨의 재촉이 서늘했다. 나는 액정의 균열을 바라본 채 입술을 악물었다.

(나) 아저씨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검은 봉지를 열어 보았다. 안에 옥수수와 계란빵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먹을지스러워 보이는 옥수수를 꺼내 들었다. 손에 쥐어 보니 뜨끈뜨끈했다. 내 손바닥을 포옥 잡아 쥔 아저씨의 손과 느낌이 비슷했다.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먹어 보았다. 차지고 톡톡 찌는 것만 옥수수 알갱이가 입안에서 돌아다녔다. 달콤하

고 고소했다. (중략)

또 다른 내 손엔 만 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꼬깃꼬깃 불룩없는 지폐였다. 아저씨가 옥수수 몇 개를 팔아서 이걸 버는 걸까? 오늘도 여기저기 수습하느라 하나도 못 판 건 아닐까? ㉢점점 입안의 옥수수 감촉이 불편해졌다.

아저씨 지금 나는 옥수수가 아닌, 가진 것 없는 아저씨의 살점을 뜯는지도 모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이 병실에는 아파서 들어온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안 그러면 대학생 형이 지혈제 병실을 자주 비울 리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와 환자복만 입으면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그런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죽어 있었다. 그 대기로 백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번 죽은 적 없고 성능 좋은 컴퓨터와 멋진 스마트폰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났다. 옥수수 아저씨의 붓등이 아가였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숨 쉬는 그 녀석은 진짜였다. 내 손에 들린 옥수수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제빨리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밖으로 급하게 뛰어가다가 복도에서 여자리 할아 버지와 마주쳤다.

"학생, 어디 가는 거?"

나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계속 달려 병동 밖으로 뛰쳐나왔다.

㉦옥수수 아저씨, 선글라스 아저씨, 부모님, 재준아가 번갈아 떠올랐다. 미처버릴 것같이 숨이 가빠다. 누구든 먼저 마주치면 이 기분을 다 쏟아 낼 것이다.

내 손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즈음, 저 멀리 빗바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옥수수, 영양계란빵 세 개 이천 원.'

21 (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심리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ㄱ. 부모님께 죄송함.

ㄴ. 선글라스 아저씨가 짜증남.

ㄷ. 옥수수 아저씨가 원망스러움.

ㄹ. 거짓말을 하려니 불안하고 긴장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에 담긴 '나의 심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친구 스마트폰을 빌려서 게임하다가 자동차에 치이고, 친구 스마트폰을 망가뜨렸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크게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

② ㉡: '내가 다친 것과 재준이의 스마트폰이 망가진 것은 옥수수 아저씨의 잘못이 아닌데 아저씨에게 떠넘기려는 성향이 슬프고 미안하다.'

③ ㉢: '나'를 걱정하며 옥수수를 들고 온 아저씨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불편해진다.

④ ㉤: 자신의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⑤ ㉦: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23 (나)에서 옥수수 아저씨를 뽐스니범으로 몰아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나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을 찾아 쓰시오.'

아저씨! 지금 나는 옥수수가 아닌, 가진 것 없는 아저씨의 살점을 뜯는 거다. 모른다.

24 ㉥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옥수수 아저씨의 어려운 형편에 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② 스마트폰 때문에 재준이와의 우정을 저버린 것이 미안하고 속상했다.

③ 모든 사건의 원흉인 선글라스 아저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④ 부모님에게 어려운 형편에 각정을 끼쳐드린 것 같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⑤ 모두에게 거짓말한 스스로의 행동이 부끄러웠고,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싶었다.

25 (나)에서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을 찾아 쓰고, 이것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한다.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의미.